2루타-3루타-안타-3루타

오준혁, 그러나 웃지 못했다

KIA, kt에 6-9로 져
김주형 홈런·2루타
실책 남발에 빛바래
윤석민 4이닝 7실점

10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KIA 오준혁이 8회초 3루타를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잘 치고도 웃지 못한 오준혁과 김주형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10일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kt와의 경기에서 6-9 패를 기록, 루징 시리즈로 수원 원정을 끝냈다.

외야수 오준혁이 2개의 3루타를 포함해 5타수 4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면서 야구 인생의 최고의 성적을 썼지만 팀의 패배에 웃지 못했다. 내야수 김주형도 비거리 130m의 시즌 2호포와 함께 멀티히트를 기록했지만 최악의 수비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날 뒷심을 발휘하며 6-3로 승리를 거둔데다 윤석민이 출격하는 만큼 이날 경기는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았다. 그러나 2회 유격수 김주형의 송구실책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윤석민이 선두타자 유한준을 좌전 안타로 내보낸 뒤 박경수에게 땅볼 타구를 유도했다. 김주형이 길목에 서서 여유롭게 공을 잡으면서 더블 플레이까지 노려볼 만했다. 그런데 김주형의 악송구가 나오면서 무사 2·3루가 됐다.

윤석민이 몸에 맞은 볼로 김상현까지 내보내면서 무사 만루. 윤석민이 김연훈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윤요섭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했다. 이후 이대형과 마르테에게 적시타를 얻어맞으면서 순식간에 점수는 0-5가 됐다. 실책으로 출발이 좋지 못했던 윤석민은 1-5로 뒤진 3회말에는 김상현에게 투런포까지 허용했다.

또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김주형이 평범한 땅볼 타구를 잡지 못하면서 두 번째 실책이 올라갔다. 김주형의 아찔한 플레이는 계속됐다. 4회초 1사에서 시즌 2호포를 터트렸지만 4회말 수비에서 포수 이홍구와의 협살 플레이를 완성하지 못했다. 포수의 실책으로 기록됐지만 김주형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야 했다. 6회에도 악송구 탓에 비디오 판정까지 가서 겨우 아웃을 만들었고, 볼넷으로 출루한 7회에는 도루 실패로 돌아섰다. 9회 2루타로 멀티히트는 기록했지만 자신의 실수로 기울어진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비의 도움이 따르지 않았지만 윤석민의 침착함과 컨트롤도 부족했다. 윤석민은 명성에 미치지 못한 피칭으로 4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나면서 4이닝 7피안타(1피홈런) 5사사구 5탈삼진 7실점(4자책)을 기록했다.

오준혁에게는 더 아쉬운 경기가 됐다. 개막 후 5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오준혁은 이날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을 했다. 오준혁은 kt 선발 피노를 상대로 한 첫 타석에서도 초구에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김기태 감독의 믿음에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 타석에서 오준혁이 2루까지 내달리면서 자신의 시즌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했다. 물꼬를 튼 오준혁은 세 번째 타석에서는 우중간을 가르는 타구로 3루까지 내달렸고, 6회에도 우전 안타를 터트렸다. 그리고 8회 마지막 타석에서 다시 한번 매서운 타구로 3루까지 진루하면서 2개의 3루타 포함 5타수 4안타의 놀라운 성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4번이나 진루에 성공하고도 기회마다 침묵한 3번 김주찬과 두 개의 병살타를 남긴 4번타자 필의 부진으로 홈에는 두 번 밖에 들어오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中 거니에신산(6204m) 도전 영호남 학생산악연맹원정대 훈련 현장 동행 취재

오는 6월 중국 사천성의 해발 6천미터 고지의 '거니에신산' 등정길에 오를 영호남합동 학생산악연맹원정대원들이 곡성 동악산 인근 암벽에서 등반훈련을 하고 있다.

24년만에 영호남 대학생 의기투합
"끈끈한 팀워크로 등반 성공하겠다"

곡성 동악산 완주하며
등반 기술·요령 등 익혀
6월 30일 출국 예정

9일 오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동악산 기슭. 건장한 체구의 청년들이 무리지어 산을 오른다. 등산로라고 해봤자 약초꾼들과 몇몇 등산객들이 내어놓은 굽이진 좁은 비탈길이지만 검게 탄 얼굴에 우람한 어깨, 20kg은 족히 넘을 듯한 배낭을 들쳐 맨 모습은 산짐승처럼 날쌔다.

목표는 동악산 매표소를 출발해 해발 737m의 정상을 거쳐 능선을 따라 후 촛대봉과 삼인봉을 거쳐 돌아오는 총 12km를 7시간에 완주하는 여정이다. 세 시간만에 정상에 다다랐다. 취사 금지 규정 탓에 베이스캠프에서 싸온 주먹밥으로 허기를 채운 후 다시 발길을 옮긴다. 등반은 예정보다 한 시간이 지연된 오후 5시에 끝났다. 대원들의 표정에는 제시간 내 등반을 마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역력하다. 다음날에는 인근 20m 길이의 암봉에서 주마링(등강기를 이용해 고정된 로프를 타고 암벽 등을 오르는 기술) 훈련으로 땀을 흘렸다.

영호남 대학 산악인들이 지역 화합과 알피니스트 양성을 위해 다시 의기투합했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회장 류재강)과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회장 홍종욱), 부산학생산악연맹(회장 이창호) 소속 산악인들이 '2016 중국 거니에신산(格聶神山·6204m) 영호남합동 학생산악연맹원정대'를 꾸린 것이다.

학생산악연맹의 영호남합동원정은 지난 1992년 광주일보 후원으로 이뤄진 광주학생산악연맹과 대구학생산악연맹의 '포베다·칸텡그리 톈산원정대' 이후 24년만이다. 대원들은 오는 6월 30일 출국해 극지법 방식으로 정상에 오른 뒤 7월 25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원정대는 광주·전남 6명, 대구·경북 4명, 부산 5명으로 선배 3명이 각 대장을 맡고 나머지는 재학생들로 구성됐다.

대원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동악산 인근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야영하며 선배들로부터 등반 기술과 알피니즘, 원정 준비 요령 등을 익혔다. 지난 겨울에는 경남 거창의 금원산에서 매서운 눈바람을 이겨내며 1차 훈련을 마쳤고 출국 직전까지 2~3차례의 합동훈련과 개인훈련으로 기량과 체력을 다질 계획이다.

원정 대상인 거니에신산은 중국 사천성 서부 리탕고원에 위치한 해발 6204m의 만년설에 덮인 험준한 설산으로 소수민족인 장족이 신성시하는 곳이다.

대부분 첫 해외원정 등반인 만큼 대원들의 각오도 진지하다. 대원 중 맏형인 이재훈(부경대 컴퓨터공학과)씨는 "지난 2013년 조지아(옛 그루지아)의 카즈베크산에서 20일간 산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웍과 끈끈한 유대감 속에 후배들이 좋은 기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학년이 되면 바다에서 생활해야 하니 등반으로 대학생활을 의미있게 만들고 싶다"는 장용익(목포해양대 기관과)씨와 "동아리 선배가 히말라야원정대로 가는 게 부러워 자원했다"는 차태양(전남대 산림자원학과)씨, "학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원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박지훈(부산대 건축학과)씨 등 대원들 모두 원정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다.

이번 원정을 총괄 지휘할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이정현 대장은 "24년 만에 꾸려진 영호남합동팀에 각 시·도 연맹의 기대가 크다"며 "촘촘한 팀웍으로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등반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원 명단.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대장 이정현(46·순천대OB) ▲차태양(22·전남대) ▲이재림(20·송원대) ▲장용익(21·목포해양대) ▲배은영(21·순천대) ▲최병광(25·순천대)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김동국(성광고OB) ▲김세옥(25·영남대) ▲박철융(24·계명대) ▲차호진(22·경일대) ◇부산학생산악연맹 ▲백광운(39·부산대) ▲이재훈(24·부경대) ▲김인엽(26·부경대) ▲한진석(23·부산대) ▲박지훈(22·부산대)

/글·사진=김진수기자 jeans@

하늘도 무심…곽정철 다시 재활군

오른손 혈행장애…휴식 필요

KIA 외야수 나지완과 투수 곽정철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지난 주말 kt와의 원정경기에서 KIA의 엔트리 변동이 있었다. 9일 나지완이 먼저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10일에는 곽정철의 이름이 빠졌다. 큰 틀에서는 '재충전'이라는 의미지만 두 사람은 다른 입지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됐다. 나지완의 행선지는 퓨처스리그이고 곽정철은 재활군이다.

타이거즈 역사상 첫 개막전 신인 4번 타자로 프로에 데뷔한 나지완은 자신의 9번째 개막전은 벤치에서 시작했다. 지난 8일 kt전에서 처음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5경기 성적은 0.308 타율과 함께 홈런 없이 1타점. 크게 부족한 타격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수비 실수로 팀 상승세를 막고 말았다. 7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좌익수로 나왔던 그는 6회 플라이 타구를 놓치면서 역전의 빌미를 제공했다. 타석에서는 송구 방해까지 기록하며 패배에 큰 지분을 차지했다.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KIA는 8일 kt 원정에서도 안타(3)보다 많은 실책(4)를 기록하면서 0-4 영봉패를 당했다. 그리고 김기태 감독은 9일 나지완을 빼고 외야수 노수광을 불러들였다. 노수광은 9일 8회 대타로 1군 타석에 서자마자 적시타를 때렸고, 도루에 이어 상대 실책으로 홈까지 밟으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여기에 오준혁은 10일 3루타 2개 포함 5타수 4안타로 펄펄 날았다. 김주찬이 지명타자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나지완은 외야수 후배들의 거센 도전에도 직면했다. 신종길도 호시탐탐 콜업을 기다리고 있다.

1765일만의 1군 등판에서 1792일 만에 세이브를 올렸던 곽정철은 두 번째 등판에서도 친구 윤석민의 승리를 지켜주면서 시범경기에서 시작된 6.2이닝 무실점 행진에 2.1이닝을 더했다. 그러나 그의 거침없던 질주가 잠시 멈추게 됐다. 혈행장애가 그 이유다.

오른쪽 검지가 문제가 됐다. 지난해에도 곽정철은 혈행장애로 재활 과정을 잠시 중단하고 정밀 검사를 받았다. 큰 이상이 없었고, 재발도 없었지만 시즌 시작과 함께 혈행장애가 찾아왔다. 추운 날씨와 곽정철의 너클 커브 그립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준재 의무 트레이너는 "지난해 증상이 있어서 정밀 검진을 받았었는데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야간경기를 하면서 날씨도 차고, 커브 그립을 잡을 때 검지를 접어서 강하게 잡는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본다. 날씨가 풀리고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잠시 1군 무대에서 비켜나게 된 나지완과 곽정철. 새출발이라는 마음으로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된 나지완과 곽정철이다.

/김여울기자 wool@

캐치볼 통과 ➡ 불펜피칭 통과 ➡ **라이브 피칭 1차 통과** ➡ 마이너 실전 돌입

류현진, 타자 세우고 공 20개 던져… 13일 한차례 더 점검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마운드 복귀를 위한 다음 단계도 무사히 통과했다.

류현진은 지난 8일(이하 한국시간) 타자를 타석에 세워두고 공을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무사히 소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신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9일 류현진이 라이브 피칭에서 20개를 던졌다고 소개했다.

류현진이 타자를 상대로 공을 던진 건 작년 5월 어깨 수술 이후 처음이다. 어깨나 팔꿈치 수술을 받은 선수는 캐치볼과 불펜 피칭을 거쳐 라이브 피칭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건 '통증'이다. 수술 후 오랜만에 근육을 써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근육통'과, 수술을 한 곳에 무리가 가 이상을 일으킨 '통증'을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하루 이틀이면 풀리지만, 통증은 더 오래 간다. 류현진 역시 2월 말 불펜 피칭 후 통증을 느껴 다시 캐치볼 단계로 돌아간 경험이 있다. 그래서 첫 라이브 피칭 뒤 경과가 중요하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의 라이브 피칭이 하루 지난 9일 "상태가 좋다"고 소개했다.

류현진은 13일 라이브 피칭에서는 더 많은 타자, 더 많은 공을 던질 예정이다. 라이브 피칭에서도 문제가 없으면, 류현진은 이제 마이너리그 연습경기에서 실전 피칭에 돌입한다.

/연합뉴스